

농촌체험휴양마을서 힐링을~

익산시, 용안생태습지공원 등 7곳 정비... 숙박·체험 가능 소규모·가족 단위 여행객에 안성맞춤, 최대 50% 할인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코로나블루'를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도시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야외공간, 소규모여행 등 변화하고 있는 여행 키워드에 맞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정비하고 도시민들을 맞고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마을의 역사와 문화 등 농촌 마을 자원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해 도시 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고 파소화 되어가는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업으로 숙박·식사·체험이 가능하다. 익산에는 7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다.

익산시에는 미륵사지와 왕궁리석탑을 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비탈기비길 따라 거닐며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20만평 규모의 ▲용안생태습지공원, 주변에 산재한 편백숲길을 걸으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두동면백마을, 금강의 일몰이 장관인 ▲산들강용포마을, 금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자전거여행을 즐길 수 있는 ▲성당포구마을, 멜론·딸기 등 황토산지에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수은마을, 금강변 따라 은빛 역새갈이 일렁이는 ▲용머리고을 천연염색·비누공예 체험 등 고운 자연의 빛깔을 만끽할 수 있는 ▲풀빛향기송정마을, 천오백년의 정기가 흐르는 미륵사지를 품은 ▲삼기죽정

대파나마을 등에서 가족 단위 체험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할 다양한 농촌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들강용포마을, 성당포구마을, 용머리고을에서는 물놀이가 가능한 수영장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를 예방을 위해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을 고용해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공공근로 방역일자리 창출로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소규모·가족 단위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더불어 초·중·고 교육 현장의 체험활동을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하



익산시는 도시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소규모여행 등 변화하고 있는 여행 키워드에 맞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정비하고 도시민들을 맞고 있다.

는 '찾아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을 교육행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안전한 비대면 소득·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전북도에서 진행되는 '공감여행' 지원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되는 '농한 캠페인' 등 일정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활용해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경험을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이용시 1인당 숙박·식사·체험 비용을 각각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농촌관광지 숙박·체험·농특산물 구매 시 지정된 결제카드 금액의 30%를,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는 삼성꿈장학재단이 후원하고 생명생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영국)가 주관하는 축구교실 축구용품 전달식이 김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시의회 의원,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 아동들의 꿈을 향해 '희망의 숲'

군산시, 축구교실 용품 전달

지역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축구용품 전달식이 개최되며 아동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삼성꿈장학재단이 후원하고 생명생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영국)가 주관하는 축구교실 축구용품 전달식이 김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시의회 의원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4일

밝혔다. 해마다 5월 진행되었던 축구교실 발대식은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내빈들의 응원 한마디와 참석한 학생에게 축구화, 운동복, 축구공 등 용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간소하게 마무리됐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나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 축구선수였다"며,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기를 바란다. 힘내라"고 응원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과학놀이터'

군산대학교가 군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3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만 5세 어린이 및 지역아동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양과학놀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양과학놀이터'는 요리와 과학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양배추 피클 만들기 △경단 만들기 등을 진행하며 삼투압, 효화, 끓는점 등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철저한 준

비를 통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학습과 체험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영양과학놀이터 프로그램이 요리를 통해 과학의 원리를 즐겁게 배우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익산 기쁨의 하우스' 개소

도내 최초로 운영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익산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4일 미혼모들의 출산과 양육, 자립을 지원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쁨의 하우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정현을 시장과 유제구 시의회 의장, 한부모 및 미혼모 관련 시설장과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동안 도내에는 미혼 임산부의 출산을 지원할 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

어왔다. 익산에 미혼모자시설이 문을 열게됨에 따라 미혼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 사회경제적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쁨의 하우스'는 모현동 기쁨교회 내에 위치하며, 400.98㎡, 2층 규모로 1층에는 교육실, 상담실, 의무실, 식당, 사무실 등이 들어섰으며 2층에는 생활실 8실과 공동육아실을 갖추고 있다. 미혼의 임산부와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미혼모가 입소대상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민방위 교육 비대면 변경 '눈길'

군산시가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집합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민방위 대원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다. 기존에는 대원 1~4년차는 4시간의 집합 교육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을 받아 왔다. 사이버교육은 시 소속 민방위 대원이었던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15개 과목으로 구성된 사이버교육은 개그맨 김학도를 비롯한 인기 연예인이 출연하여 재미와 흥미를 더하고 지진 등 생활안전 기본상식도 배울 수 있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 병해충 피해 최소화 종합방제 기간 운영 호응

군산시가 길어진 장마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방제 기간을 운영하며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올 장마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벼를 비롯한 농작물에 병해충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오는 14일까지 벼 병해충 적기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농가피해 최소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군산시 농기술센터가 최근 벼 병해충 집중예찰 결과 일부지역에 먹노린재 밀도가 높아지고 있고 중곡에서 기암골을 타고 날아오는 비래해충인 흑명나방 채집량과 유충의 비 밀도가 해촌이 전년에 비해 2주 정도 빨리 발견됐다. 또한 질소질 비료가 많은 논과 도열병에 약한 품종을 중심으로 벼 잎도열병 등 장마가 끝난 후 기온이 높아지면 발생 밀도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산=한영봉 기자

익산시, 폭서기 대비 축산악취 단속 강화

2중 관리체계 가동... 사전차단으로 민원 선제적 대응

익산시가 축산악취 특별점검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폭서기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축산악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축산악취특별점검반과 상시감시반 등 2중 관리체제로 효율적으로 악취를 저감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폭서기를 대비해 미래농정 국·과장 등 총 2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과 악취포집반 2개조를 추가로 운영한다.

오는 9월까지 취약시간대인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축산악취 중점관리대상 100곳과 모니

터링 농가 15곳 등 총 115곳의 축산농가를 점검한다.

점검반은 민원신고 접수 시 해당 농장에 즉시 출동해 악취를 개선할 것을 지시하고 고농도 악취발생 농가에 대하여는 악취포집 단속을 실시한다.

상시감시반은 1인 2조로 나뉘어 남부권과 북부권의 축산농가를 휴일 없이 새벽 12시까지 상시적으로 순찰하여 악취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점검 결과 관리가 소홀한 농가는 즉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농가 스스로 악취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장비대여 등의 지원에 나선다. 시는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악취측

정 장비 2대를 농가에 48시간 동안 무상으로 대여한다. 농가가 장비 대여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농가에 방문하여 축사 내부에 측정장비를 설치해 압도나야 황화수소 복합악취 등 악취농도를 48시간 동안 측정하고 악취농도 데이터를 농가에 제공한다.

농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악취발생 시간과 악취발생 작업 등을 확인하여 농가실정에 맞는 악취저감 방안을 자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책임 의식을 갖고 악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무인악취 포집기와 대기편승 악취저감장치, 휴대용 측정 장비, 악취지도단속 포집장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